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upan-go*, or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Wood-block Printing Plates Engraved in the Joseon Dynasty of Korea, Edited by Seo Yu-Gu
- Focused on Analyzing it's Bibliographical Descriptive Forms and Principles -

리 상 용 (Lee, Sang-Yo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2.5 저작역할어표시 |
| 2. 「누판고」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 2.6 주기사항표시 |
| 2.1 표제표시 | 2.7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 사례 |
| 2.2 권수표시 | 3. 결 론 |
| 2.3 저작시대표시 | <참고문헌> |
| 2.4 저자명표시 | |

< 초 록 >

본 논문은 조선시대에 서유구(徐有集)가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한 분류순 해제목록인 『누판고(鑿板考)』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목록기술은 표제, 권수, 저작시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주기사항,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누판고』는 상당히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의 엔트리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목록기술사 상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要語: 서유구, 누판고, 목록기술방식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syly@ewha.ac.kr)

접수일: 2012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Nupango*, or an Annotated Classified Bibliography of Wood-block Printing Plates, which was edited by Pungseok Seo Yu-gu's in 1796 by the King's command, Joseon Dynasty.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as examined regarding title, volume number, written age, name of author, functional word of authorship, notes, and noteworthy examples. It was a limitation that indicated the lack of unity and coherence i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Nupango*. However, its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Seo Yu-gu established entries for annotated works based on his own methods of description.

Key words: Seo Yu-gu, *Nupango*, Method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pungseok

1. 서론

「누판고(鑄板考)」는 정조 20년(1796)에 풍석 서유구(楓石徐有渠)(1764-1845) 등이 정조의 왕명으로 편찬한 전국책판해제목록이다. 이 책의 서명 「누판고(鑄板考)」에 나오는 ‘누판(鑄板)’이란 말은 사전적 해석으로 ‘목판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는 일 또는 그 산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때와 경우에 따라 누판(鑄板), 누각(鑄刻), 누재(鑄梓), 조판(雕板), 판목(板木, 版木), 목판(木板, 木版) 책판(冊板, 冊版) 등의 용어와 더불어 그 뜻을 같이하거나 비슷하게 갖는 동의어(同義語) 내지 유의어(類義語)로 쓰이는 용어이다.

이 「누판고」는 정조 2년(1782)에 전국에 유시(諭示)를 내려 개인과 공공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목판본의 대본인 판목(板木)들 즉 책판(冊板)들을 조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올리게 하고, 규장각에서 그들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격인 중외장판부(中外藏板簿)를 편찬하게 한 데서 기원한다.¹⁾ 이 「누판고」가 「고사촬요(攷事撮要)」, 「삼남책판목록(三南冊板目錄)」, 「각도책판목록(各道冊板目錄)」 등 역대 책판목록과 크게 다른 특징은 각 도군(道郡)별 순으로 만든 책판목록이 아니라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법에 의해 배열된 점과 각 저작에 해제를 붙인 점이다.²⁾

「누판고」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리재철, 천혜봉, 김윤식, 박문열, 리상용 등의 것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누판고」에서 채용한 사분법 분류체계 및 분류항목의 특징, 개판시기, 개판상황, 저작문제, 「누판고」와 「경외누판(京外鑄板)」과의 관계,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누판고」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 「누판고」는 경사자집의 사부분류법에 의거하여 610종의 저작을 배열하고, 그 개개 저작에 대해 목록기술을 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누판고」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김윤식, “누판고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8).

2)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제7집(1976), 580-598.

2. 「누판고」 수록 저록의 목록기술

「누판고」의 각 저록(著錄)의 기입(記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목록기입법인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저록의 목록기술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經書釋義八卷

本朝左贊成文純公李滉撰 哀輯諸家口訣 而證訂之 間附與門人辨難之說
宣廟朝 纂修經書諺解 以是書爲藍本云

禮安陶山書院藏刊 印紙二牒十一張一片

위의 예를 분석하면, ‘경서석의(經書釋義)’는 표제를, ‘팔권(八卷)’은 권수를, ‘본조(本朝)’는 저작시대, ‘좌찬성문순공이황(左贊成文純公李滉)’은 저자명을, ‘찬(撰)’은 저작역할어를 ‘哀輯諸家口訣 … 以是書爲藍本云’은 해제를, ‘禮安陶山書院藏刊 印紙二牒十一張一片’은 장판(藏板) 관련 주기사항을 각각 가리킨다. 즉, 「누판고」의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대체로 표제, 권수, 저작시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주기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서지적 기술 사항 중에서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목록기술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1 표제표시

「누판고」에서는 표제표시에 있어서 어찬서(御撰書) 또는 어정서(御定書)에 대해 ‘어정(御定)’이나 ‘흠정(欽定)’이란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제표시에 있어서 그 외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예:

古今年代龜鑑一卷 英宗丁丑御撰

心鑑一卷 英宗朝御撰
三綱行實圖三卷 世宗辛亥集賢殿副提學俛循奉教撰
天文類抄二卷 世宗朝承政院承旨李純之奉教撰

2.2 권수표시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卷數)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
四禮問答四卷
金剛般若波羅密經二卷

권수를 밝히지 못한 서적의 경우 책 상단 여백인 서미(書眉)에 소자로 ‘권수사고(卷數俟考)’라고 표시하였다.³⁾

예:
武經要節 卷數俟考
東溪集 卷數俟考

2.3 저작시대표시

저작시대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으며,

예:
史記評林一百三十一卷 漢太史令司馬遷撰
周易本義十二卷 宋朱子撰

3) 원본에는 서미(書眉)에 권수사고(卷數俟考)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홍명희 교정본 「누판고(鏤板考)」에 따라 서명 다음에 기술하였다.

二程全書六十八卷 明徐必達編
破間集三卷 高麗寶文閣學士李仁老撰
禮記淺見錄二十六卷 本朝權近撰

간혹 ‘묘호(廟號)+간지(干支)’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예:
守城節目一卷 英宗辛未 備局諸臣奉教編
五禮儀八卷 序例五卷 成宗甲午 高靈君申叔舟等奉教撰

역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좀 더 넓게 시대표시를 한 경우도 있고,

예:
纂圖脈訣 六朝時高陽生撰 不著名氏

『누판고』가 편찬된 정조 때 간사된 서적은 ‘당저(當宁)+간지(干支)’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예:
奎章全韻二卷 當宁壬子奉教撰
八子百選六卷 當宁辛丑御定
春秋正音四卷 當宁甲辰司譯院校刻

2.4 저자명표시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저자명은 대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예:
周易本義口訣附說二卷 本朝刑曹參判崔昱撰
句解南華真經十卷 宋中書舍人林希逸撰

앞에서 한번 나온 저자가 그 다음 번에 나오는 경우, 대개 관직명이나 시호를 삭제하고 ‘성+명(姓+名)’의 형식으로 기입하였으며,

예:

경부 총경류의 經書釋義八卷 本朝議政府左贊成文純公李滉撰
경부 역류의 啓蒙傳疑一卷 本朝李滉撰

원저작이 있는 경우 원저작의 저자를 밝혀준 다음에 저자명 표시를 하였다.

예:

新註無冤錄二卷 無冤錄 元王與撰 … 本朝 世宗戊午 吏曹參議崔致雲等
奉教註之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직명+시호+성명(官職名+諡號+姓名), 관직명+작호+시호+성명(官職名+爵號+諡號+姓名)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예:

官職名+諡號+姓名的 경우:

陽村入學圖說一卷 本朝議政府左贊成文忠公權近撰
經書釋義八卷 本朝議政府左贊成文純公李滉撰

官職名+爵號+諡號+姓名的 경우:

懲毖錄十六卷 本朝議政府領議政兩館大提學豐原府院君文忠公柳成龍撰
四禮訓蒙一卷 本朝議政府領議政兩館大提學鰲城府院君文忠公李恒福撰

2) 불가 서적의 경우, 대개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글자를 관기한 후 ‘석(釋)+법명’의 형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는데, ‘석(釋)’이란 글자 대신 승려의 출신국을 관기한 경우도 있다.

예:

禪門拈頌說話三十卷 高麗釋慧謙撰 本朝釋天隱子說話
景德傳燈錄三十卷 宋釋道原編
起信論二卷 天竺馬鳴菩薩造 梁三藏真諦譯 唐釋宗密疏
華嚴經六十卷 唐于闐實叉難陀譯 釋澄觀疏

3) 일반 부녀자(婦女子)의 저자명은 ‘부군의 성명+처+성씨(夫君의 姓名+妻+ 姓氏)’의 형식으로 기입하였다.

예:

蘭雪軒集 本朝承文院正字金誠立妻許氏撰

4) 어찬서(御撰書)와 어정서(御定書)의 경우를 보면, 어찬서(御撰書)는 대개 ‘어찬(御撰)’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예:

小學指南二卷 英宗丙戌 御撰
心鑑一卷 英宗朝 御撰

어정서(御定書)는 대개 ‘묘호+간지+관직명+신하명+등+봉교찬(廟號+干支+官 職名+臣下名+等+奉教撰)’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龍飛御天歌十卷 世宗乙丑 集賢殿大提學 權躡鄭麟趾等 奉教撰
樂學軌範九卷 成宗癸丑 禮曹判書 成倪等 奉教撰
東醫寶鑑二十五卷 宣祖丙申 太醫許浚等 奉教撰

또한 정조의 재위시기에 편찬된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당저+간지+봉교 찬(當宁+干支+奉教撰)’ 또는 ‘당저+간지+어정(當宁+干支+御定)’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예:

國朝寶鑑六十八卷 別編七卷 當宁辛丑 奉教撰
史記英選六卷 當宁丙辰 御定

그러나 간혹 상기 예에서 본 어제서나 어정서의 기술 방식에 따르지 않고 일반 서적의 기술사항을 그대로 따른 경우도 있었다.

예:

璿源系譜紀略二十二卷 肅宗己未編
光國志慶錄一卷 肅宗辛巳編

5) 문집의 경우 원집, 속집, 별집 등에 대해 각각 편자 표시를 한 경우가 있다.

예:

訥齋集八卷 續集五卷 本朝羅州牧使文簡公朴祥撰 弟祐所編爲原集 金壽恒
所編爲續集
退溪文集五十一卷 續集八卷 年譜三卷 本朝李滉撰 原集及年譜 門人柳成龍
編 滉六世孫守淵 蒐得詩文逸篇爲續集
龜巖集二卷 本朝弘文館副提學李楨撰 李滉門人也 原集一卷 許穆編 續集一
卷 魚有成編
記言六十七卷 別集二十六卷 本朝議政府右議政文正公許穆撰 原集穆手定
別集門人所編

6)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다.

예:

大學童子問答一卷 本朝曹好益爲其門人金鉉撰
忠武公家乘六卷 本朝新寧縣監李弘毅 哀輯其高祖三道統制使李舜臣事蹟者
關西問答錄一卷 本朝李彥迪子全仁記彥迪言行
近思錄釋疑十四卷 本朝議政府左參贊文肅公鄭曄 因金長生所撰本而修潤之
唐宋八大家文鈔一百四十四卷 明大名兵備副使茅坤 選韓愈柳宗元歐陽脩蘇
洵蘇軾蘇轍曾鞏王安石之文而批評之

7) 저자가 애매한 경우는 좀 더 확실시되는 저자명을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 세간 일부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자명을 부기하였으며,

예:

童蒙先習一卷 本朝軍資監正朴世茂撰 或云金安國撰
觀象玩占四十四卷 舊題唐太史令李淳風撰 然書中 引唐文宗肅宗之事 非淳
風所著 明藝文志云 不知撰人 或曰劉基輯
伍倫全備記四卷 諺解八卷 舊題迂愚叟所撰 未詳名氏

저자미상인 경우 부저편인명씨(不著編人名氏), 부저찬인명씨(不著撰人名氏), 편각인미상(編刻人未詳)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예:

三經四書講義四十九卷 不著編人名氏
捷解蒙語四卷 不著撰人名氏
小學大文卷數俟考 編刻人未詳

2.5 저작역할어표시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소편(所編)’, ‘주(註)’, ‘집주(集註)’, ‘보주(補註)’, ‘역(譯)’, ‘해(解)’, ‘소(疏)’, ‘중수(重修)’, ‘중정(重訂)’, ‘소정(所定)’, ‘소편(所編)’, ‘설화(說話)’, ‘직해(直解)’, ‘수정(手定)’, ‘음석(音釋)’, ‘부집(哀輯)’, ‘찬차(撰次)’, ‘록(錄)’, ‘간보(刊補)’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예:

篆海心鏡五卷 本朝金振興撰
冲庵集五卷 本朝刑曹判書文簡公金淨撰 從父侄大宇所編
周易參同契一卷 漢魏伯陽撰 宋朱子註
虞註杜律二卷 唐檢校工部員外杜甫撰 元侍講學士文靖公虞集註
禪門拈頌說話三十卷 高麗釋慧謹撰 本朝釋天隱子說話
尉繚子五卷 周尉繚撰 明劉寅直解
記言六十七卷 別集二十六卷 本朝議政府右議政文正公許穆撰 原集穆手定

別集門人所編
 趙氏十忠實錄一卷 本朝趙希孟編 後孫輝普重訂
 古文真寶大全前集十二卷 後集十卷 元陳櫟編 進士宋伯貞音釋
 禪門拈頌說話三十卷 高麗釋慧謙編 本朝釋天隱子說話
 補註黃帝素問十二卷 唐王冰註 宋嘉祐中光祿卿林億國子博士高保衡奉勅補註
 妙法蓮華經七卷 姚秦鳩摩羅什譯 宋釋戒環解
 華嚴經六十卷 唐于闐實叉難陀羅譯 釋澄觀疏
 禮部韻略四卷 玉篇一卷 宋殿中丞邱雍所定 知制誥丁度重修
 凝溪實記二卷 本朝玉世寶 哀輯其先祖弘文館校理沽事蹟者
 退溪言行錄六卷 本朝李滉門人等 撰次滉之言行者
 朱書講錄刊補六卷 本朝李滉門人錄 李栽刊補

2.6 주기사항표시

주기사항은 해제를 기술한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맨 마지막에 기술하였다. 주기의 내용은 소장처와 소요인지(所要印紙)의 수량을 기재해 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樹德全編一卷 奉謨堂藏 印紙七張
 東國兵鑑二卷 嶺南右節度營藏 印紙三牒六張一片
 栗谷集十卷 續集三卷 外集一卷 年譜二卷 海州紹賢書院藏刊 印紙三十九牒
 七張
 高峰禪要一卷 寧邊普賢寺藏 印紙一牒七張

소장처가 2곳 이상인 경우 그 소장처를 모두 기술하였고,

예:
 小學指南二卷 南漢開元寺藏印紙十一張 北漢太古寺藏印紙十一張
 百行源一卷 江華府藏印紙十一張 嶺南觀察營藏刊印紙十一張 咸興府藏印紙
 十一張

소장된 목관의 완결(刊缺) 상태에 따라 ‘완(刊)’, ‘결(缺)’, ‘완결(刊缺)’ 등으로

표시하여 판목상태를 알려주었으며,

예:

古文百選三卷 北漢太古寺藏刊 印紙六牒七張
西涯擬古樂府三卷 長興府藏缺 印紙四牒十八張一片
將鑑博議十卷 關西觀察營藏刊缺 印紙九牒十張

소장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목이 소장된 지역을 표시하였다.

예:

困齋愚得錄三卷 務安縣藏刊 印紙十一牒二張
古文眞寶大全前集十二卷 後集十卷 玉果縣藏刊缺 印紙八牒五張

2.7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 외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를 들어봄으로써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7.1 공저자의 목록기술

1) 먼저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고,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으며,

예:

近思錄十四卷 宋朱子呂祖謙同撰
譯語類解三卷 本朝金指南等編

2)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급(及)’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연결시키는 기술 방식을 취한 경우도 있다.

예:

嶺海唱酬錄卷數俟考 本朝朴忠元及吏曹判書文貞公趙士秀酬和之詩
密山世稿卷數俟考 本朝議政府右贊成兩館大提學文景公朴忠元及其子兵曹判
書文莊公啓賢撰

2.7.2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

저작역할이 다른 저자표시가 두 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것을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것을 뒤에 적고 있다.

예:

童蒙須知一卷 宋朱子撰 本朝議政府領議政兩館大提學文簡公盧守愼註
孫武子三卷 周孫武撰 明劉寅直解
古文眞寶大全前集十二卷 後集十卷 元陳櫟編 進士宋伯貞音釋
補註黃帝素問十二卷 唐王冰註 宋嘉祐中光祿卿林億國子博士高保衡奉勅補註
妙法蓮華經七卷 姚秦鳩摩羅什譯 宋釋戒環解
華嚴經六十卷 唐于闐實叉難陀譯 釋澄觀疏

2.7.3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을 한꺼번에 해제한 경우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저작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으로 그의 해제를 한꺼번에 한 경우, 저작의 서명과 권수와 저자를 각각 표시하고 있다.

예:

北窓詩集一卷 古玉詩集一卷 附錄一卷 北窓集 本朝抱川縣監鄭礪撰 古玉集
礪弟掌隸院司評僭撰
河陰遺稿一卷 一竹遺稿一卷 河陰集 本朝掌隸院判決事姜大虎撰 一竹集 大
虎子濟用監奉事樹撰

상기 예의 경우 장관의 보관처가 동일하여 형제의 저술을 한덩어리로 모아서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본 논문은 정조의 왕명으로 서유구가 편찬한 『누판고(鑄板考)』(1796)의 각 저록(著錄)에 기술된 목록기술방식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판고』의 각 저록의 기입(記入)은 서명주기입법(書名主記入法)을 취하고 있으며, 각 저록의 기술 요소는 표제, 권수, 저작시대, 저자명, 저작역할어, 해제, 주기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표제표시는 어찬서(御撰書) 또는 어정서(御定書)에 대해 ‘어정(御定)’이나 ‘흠정(欽定)’이란 관제(冠題)를 서명 앞에 관기(冠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권수표시는 물리적 권수 즉 책수(冊數)가 아니라 서지적 권수를 말하는 것이며, 표제를 기술한 다음에 권수표시를 했다. 권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난외의 서미(書眉) 부분에 ‘권수사고(卷數俟考)’라고 소자로 표시하였다.

저작시대표시는 일반적으로 저자명 앞에 역조(歷朝)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으며, 간혹 ‘묘호(廟號)+간지(干支)’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며, 역조가 명확하지 않은 서적은 좀 더 넓게 시대표시를 한 경우도 있었다. 정조의 재위시절에 편찬된 서적은 대개 ‘당저(當宁)+간지(干支)’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저자명표시는 표제와 권수표시를 한 다음에 행을 달리해서 기술하였다. 저자명은 주로 ‘관직명+성명(官職名+姓名)’으로 표시하였으며, 원저작이 있는 경우 원저작의 저자를 밝혀준 다음에 저자명 표시를 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저자명표시를 하였다. ‘관직명+시호+성명(官職名+諡號+姓名)’, ‘관직명+작호+시호+성명(官職名+爵號+諡號+姓名)’ 등의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불가서적의 경우, 대개 승려를 뜻하는 ‘석(釋)’이란 글자를 관기하여 ‘석(釋)+법명’의

형식으로 표시하였으며, 일반 부녀자(婦女子)의 저작인 경우, ‘부군의 성명+처+성씨(夫君의 姓名+妻+姓氏)’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어찬서(御撰書)의 경우 대개 ‘어찬(御撰)’이라고 기입하였으며,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묘호+간지+관직명+신하명+등+봉교찬(廟號+干支+官職名+臣下名+等+奉教撰)’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정조의 재위시기에 편찬된 어정서(御定書)의 경우 대개 ‘당저+간지+봉교찬(當寧+干支+奉教撰)’ 또는 당저+간지+어정(當寧+干支+御定)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문집의 경우, 원집, 속집, 별집 등에 대해 각각 편자 표시를 한 경우가 있으며, 저자명표시를 서술형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다. 저자가 애매한 경우 저자를 기입한 후에 세간에 전하는 저자를 부기하였으며, 저자미상인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저작역할어는 ‘찬(撰)’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그밖에 ‘편(編)’, ‘소편(所編)’, ‘주(註)’, ‘집주(集註)’, ‘보주(補註)’, ‘역(譯)’, ‘해(解)’, ‘소(疏)’, ‘중수(重修)’, ‘소정(所定)’, ‘소편(所編)’, ‘설화(說話)’, ‘직해(直解)’, ‘수정(手定)’, ‘음석(音釋)’, ‘부집(裒輯)’, ‘찬차(撰次)’, ‘록(錄)’, ‘간보(刊補)’ 등 다양하게 표시하였다.

주기사항은 해제를 기술한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맨 마지막에 기술하였다. 주기의 내용은 소장처와 소요인지(所要印紙)의 수량을 기재해 놓았다. 소장처가 2곳 이상인 경우 그 소장처를 모두 기술하였고, 소장된 목판의 완결(剜缺) 상태에 따라 ‘완(剜)’, ‘결(缺)’, ‘완결(剜缺)’ 등으로 표시하여 판목상태를 알려주었으며, 소장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판목이 소장된 지역을 표시하였다.

이밖에 기타 특기할만한 목록기술사례의 경우, 첫째, 공저자의 목록기술을 살펴보면, 먼저 공저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동+저작역할어(同+著作役割語)’로 기술한 경우, 대표저자명을 표시한 다음에 ‘등+저작역할어(等+著作役割語)’의 형식으로 기술한 경우,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급(及)’ 자를 삽입하여 두 저자명을 연결시키는 기술방식을 취한 경우 등이 있었다. 둘째, 저작역할이 다른 두 종 이상의 저자표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주된 역할의 저자를 먼저 적고 부차적 역할의 저자를 뒤에 기술하였다. 셋째, 동일 유목에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저작이 한꺼번에 해제된 경우, 저작의 서명과 권수와 저자를 각각

저자표시를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구가 편찬한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은 비교적 통일성을 갖춘 목록기술방식을 설정하여 저록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한국목록기술사상 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참고문헌>

- 강주진. “徐有渠 著 鏤板考.” 『한국학』 제2집(1974). 13.
- 김윤식. “鏤板考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79.
- 리재철.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제7집(1976). 580-598.
- 리상용.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4.
- 리상용. “『해동문헌총록』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51집 (2012). 341-357.
- 박문열. “京外鏤板과 鏤板考와의 關係.” 『청주대학교논문집』 제18집(1985). 91-120.
- 서유구. 『鏤板考』. 사본. 7권3책.
- 서유구. 『鏤板考』. 홍명희 교정본. 서울: 보련각, 1968.
- 천해봉.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3.